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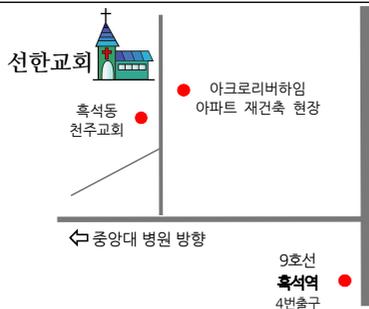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b>주 일 예 배</b>	1부 주일 오전 9:30	<b>부서예배및모임 (주일)</b>	
	2부 주일 오전 11:0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1:00
<b>수 요 예 배</b>	수요일 저녁 7:30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1:00
<b>금 요 기도회</b>	금요일 저녁 8:30	청 소 년 부	오전 9:50 마 리 아 회 오후 1:00
<b>새 벽 예 배</b>	월-금요일 새벽 5:30	청 년 부	오후 1:00 드 보 라 회 오후 1:00
	*월삭새벽예배 6:00		에 스 더 회 오후 1:00
<b>셀 가족모임</b>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b>사 역 자</b>	담임목사 임 춘 배 전임전도사 김진만 전임전도사 권인혁 협력전도사 오효남	<b>파 송 선 교 사</b>	강성규 (러시아)
		<b>협 력 선 교 사</b>	양병순 (카자흐스탄) 이금주 (미국)
		<b>국 내 선 교 사</b>	오인숙
<b>장 로</b>	<b>유 신 응</b> (집사장) 김대희 박희태 조윤익 한배선	<b>관 리 장 로</b>	손석규
		<b>500/50 교회</b>	(1호) 필리핀 Good Church (2호) 세종 선한교회 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효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 5:16)

Walk By The Spirit

실천사항 선교사의 삶 제자삼기(1인) 성경강론(1장)

<b>삶의 방식</b>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	---



암송구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15~16)



담임목사 임 춘 배

**오전 예배**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원	인도자
찬양과경배	75장 (통일찬송가 47장)
교독문	교독문 44번(시편 100편)
찬양과경배	94장 (통일찬송가 102장)
예배기도	박희태 장로
찬양	드림성가대
말씀봉독	빌립보서 3:1~9
설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임춘배 목사)
헌금드림	윤호중 윤진기 이동수
환영및광고	인도자
파송의노래	주를 위한 이곳에
축도	임춘배 목사
송영	드림성가대
성도의교제	다함께

**수요 예배** 오후 7:30 예배장소 : 본 당 인도자 : 임춘배 목사

말씀봉독 선견자를 찾은 사울, 왕을 찾은 사무엘 (사무엘상 9장) 임춘배 목사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도 봉사 신청** 2018년도 희망부서 교사 및 봉사부서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미제출 시 현 봉사 부서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는 본당 뒤편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작성하시어 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문의 - 조윤익 장로 (인사위원회)
- 예·결산 위원모임** 오늘 오후 3시 예결산 위원 모임이 있습니다. 장소 : 1층 안디옥실 예결산 위원 : 한배선, 김대희, 유신웅, 조계승, 이용재, 최영석
- 신·구회장단 연합회의** 대상 : 2018년, 2017년 청·장년부 회장단 시간 : 12월 17일 예배 직후 장소: 1층 안디옥실
- 성탄예배일정** 성탄 칸타타 : 24일(주일) 오전 11시 예배 성탄 전야제 : 24일(주일) 오후 4시 성탄감사예배 : 25일(월) 오전 11시
- 매일성경강론** 주보에 성경 강론을 위한 참고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사용과 참여를 바랍니다. (월~금 주5일)
- 예배준비 안내 및 정리** 각 셀별로 돌아가면서 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예배준비 및 안내가 있습니다. 오늘은 **관악셀**에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강북,강서셀**입니다.

건축헌금 입금계좌  
국민은행 025101-04-158561 예금주: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교회  
입금 후 확인은 재정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석 집사 : 010-4333-6242)

2017년 성경강론 범위						
12/17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8장	사무엘상 9장	사무엘상 10장	사무엘상 11장	
※매주 성경통독 내용과 암송구절은 주보를 참조.						

**한주간의 기도제목**

예배처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기쁨과 감사로 흘러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기를 담임목사님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날로 더하시기를

찬송 :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289장(통 208장)

본문 : 창세기 35장 1~15절

말씀 : 오늘부터 3회 동안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며 회복의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야곱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형 에서와 싸웠습니다. 야곱은 형과의 싸움 때문에 도망을 치게 됐고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는 불효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야곱은 또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해 형이나 삼촌을 속이는 것을 별일 아닌 걸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네 이름이 야곱이지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창 35:10)”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의 뜻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이기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해석에 있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항상 '주어'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다'가 원어 해석에 가깝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든 야곱의 성품과 행실을 돌아볼 때 어울리지 않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장면은 창세기 32장 28절에 등장합니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지만 창세기 32장 이후 35장에 이르기까지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지 못합니다. 창세기 35장 10절에 이르러서야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기록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얻었지만 그의 삶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기 전 야곱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서로부터 살아남기에 급급했고, 그의 자녀들은 엄청난 살육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이름과 달리 삶의 전반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불리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을 잘 고민해봐야 합니다. 본문 2~3절에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히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며,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고 말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나 사람과 싸워서 이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자'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야곱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값을 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나와 야곱이 어떻게 다른지 돌아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고 있는지 잘 고민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출처 :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제목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빌3:1-9)

서론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로 자랑합니다.

## 1.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

- (1)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육체에 둠
- (2)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함
- (3) 육체의 조건을 성취할 때 기쁨을 갖게 된다고 생각함

본론

## 2.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

- (1) 육체의 모든 조건을 해로 여김
- (2)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김
- (3) 오직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자신이 발견되어 지는 것을 참된 기쁨으로 여김

결론

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아는 복된 성도들이 됩시다.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배기도	박희태 장로	한배선 장로
헌 금 위 원	윤호중 윤진기 이동수	윤호중 윤진기 이동수
안 내	관악셀	강북,강서셀

찬양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찬송가 283장/통일 찬송가 183장)
통독	사무엘상 7장
본문 내용	사무엘은 진정한 회개를 선포하고 백성들과 더불어 미스바에 모여 기도합니다. 이 틈을 타 블레셋이 쳐들어오나 하나님이 큰 우뢰로 그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에벤에셀이라 이름 붙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합니다. 그 후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평화의 시기를 누리고, 사무엘은 해마다 벳엘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생각해보기	
1	<p>미스바 대성회</p> <p>(1)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자 사무엘은 미스바로 불러모으고 회개를 촉구함</p> <p>(2)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올라옴</p> <p>(3)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를 촉구했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제사와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얻게 하심(에벤에셀의 하나님)</p> <p>(4) 신앙의 결단을 할 때마다 어려운 시련이 온다. 이 시련을 이겨야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p>
핵심 단어	<p>미스바 - 미스바 모임의 목적 (1) 대회개 운동을 통하여 국운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거국적 성회였다. (2) 블레셋으로부터 정치, 종교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기 위한 거국적 거사였다.</p> <p>미스바 성회의 특징 (1) 지도자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해 추진한 성회였다. (2) 백성들은 금식하고 회개함으로써 동참한 성회였다.</p> <p>미스바 성회의 의의 (1) 타락하고 피폐해진 이스라엘 사회를 하나님의 왕국답게 혁신하는 대개혁의 모임이었다. (2) 파괴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대전환의 모임이었다.</p>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찬양과 기도	능력의 이름 예수 / 주 예수 보다 더 (94장/통 102장)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p>‘워룸’(War room)은 전쟁 시 군통수권자와 핵심 참모들이 모여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작전을 협의하는 곳으로, 오늘날은 기업의 전략 회의실 또는 위기 상황실을 뜻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영화 중에 &lt;워룸&gt;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있는 기도 골방을 ‘워룸’이라고 설정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 엘리자베스는 평범한 교인으로, 적당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삶의 어려움과 짐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지 않고, 어쩔 수 없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 엘리자베스가 기도의 전사 클라라 부인과의 만남을 통해 삶에 크고 작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두 사람은 만나 남편과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재정 문제 등 여러 가지 대화들을 나눕니다. 엘리자베스는 클라라로 인해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워룸’에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자 엘리자베스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남편과 딸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처럼 ‘워룸’은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사적인 공간이지만, 인생의 큰 싸움을 위한 전략을 세우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말 그대로 ‘전쟁하는 방’입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의 삶에도 크고 작은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워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p> <p>나는 기도의 골방(워룸)에 얼마나 자주 들어가고 있나요?</p>
말씀 나누기	시편 69:1~12
묵상포인트	<p>다윗은 극심한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이 지연되고 대적이 흉왕하는 상황에서도 구원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 응답은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죄성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다윗은 성령의 영감으로 자신의 고난을 통해 메시아의 수난을 예견합니다. 성도가 겪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기회가 됩니다. 고난의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인내하면, 구원과 성숙의 은혜를 경험합니다.</p>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나요?(1~2절)
적용하기	내가 맞닥뜨린 최악의 한계 상황은 무엇이었으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어떤 응답을 경험했나요?
함께 기도하기	고난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게 하소서.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받을 때 저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상황을 견뎌 낼 힘을 주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찬양	행군나팔 소리로 (찬송가 360장/통일 찬송가 402장)
통독	사무엘상 11장
본문 내용	암몬 사람 나하스가 야베스를 향해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베섹에 모인 33만의 군대를 삼 대로 나누어 암몬 사람을 치자 큰 승리를 거둡니다. 사무엘은 길갈로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생각해보기	
1	<p>사울의 암몬정복과 공식즉위</p> <p>(1) 암몬족이 영토 확장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 요단 동편 길르앗 야베스에 대하여 진을 치</p> <p>(2) 야베스 거민들은 암몬족에게 이레의 전쟁 유예 기간을 요청하고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어 구원을 호소함</p> <p>(3)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암몬을 쳐부수고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게 됨</p> <p>(4) 반대자를 정죄하지 말고 겸손히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여주신다(벧전5:6).</p>
핵심 단어	<p>나라를 새롭게 하자 - 실상 이스라엘은 왕정으로서의 변화가 이미 이루어졌다. 즉 이미 사울은 (1)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2)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 받은 일의 정당성을 신적으로 입증받는 징표로서 하나님의 신의 임재를 체험했으며, (3) 백성들의 대표자들에 의해 공개 석상에서 왕으로 인정되었으며, (4) 사울 스스로는 백성들이 바라던 모양대로 자신의 왕직을 이미 군사적 차원에서 행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길갈에서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은 첫째,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사울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적 관계를 형성시키며 둘째,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음을 신적인 권위에 의해 선포하고, 이어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대한 대관식을 치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초대왕의 공식 등극을 추인하고 확증하는 일이었다.</p>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찬양	곤한 내 영혼 (찬송가 406장/통일 찬송가 464장)
통독	사무엘상 8장
본문 내용	사무엘이 늙자 그 아들들이 사사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행으로 치달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 자신들을 다스리게 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이를 기뻐하지 않은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왕의 제도의 실상을 분명히 알릴 것을 명하십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요구한 왕의 제도가 가져올 폐해에 대해 자세히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거절하고 열방과 같이 왕이 있어야 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부득불 왕의 제도를 허락하시고 백성들은 각기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생각해보기	
1	<p>백성들의 왕정 요구</p> <p>(1) 사무엘이 늙고 그 아들들이 타락하자 백성들은 왕을 세워 달라고 요구함</p> <p>(2)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고 책망하시며 왕정 제도에 대한 경고와 함께 왕을 세우도록 허락해 주심</p> <p>(3)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한다.</p>
핵심 단어	<p>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 이때 사무엘은 자신의 노령과 아들들의 실정을 들먹이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왕을 요구했다는 사실 때문에 이같은 악감정을 품은 것은 결코 아니다. 사무엘은 그러한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워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근본 동기를 파악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은 것이다. 즉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근본 동기는 신정 정치를 불신하는 그릇된 왕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들의 요구에 불쾌감을 표시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주변 국가에 압제당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범죄와 불신앙과 우상 숭배 행위에 있는 줄 깨닫지 못하고, 사사제도와 같은 신정정치의 결함에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태도는 이제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위로, 곧 선민으로서의 고유한 특권과 사명을 포기하는 이른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독립 선언과 같은 방자한 행위였다. 사무엘은 이러한 점을 바로 파악하고 백성들의 요구에 깊이 괴로워 한 것이다.</p>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찬양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찬송가 135장/통일 찬송가 133장)
통독	사무엘상 9장
본문 내용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준수한 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 기스는 잃어버린 암 나귀들을 찾아오는 일을 그에게 맡깁니다. 두루 다니나 찾지 못하자 함께한 사환이 선견자에게 가서 자신들의 길을 묻기를 제안합니다. 사울은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던 사무엘을 만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미약함을 이유로 왕이 되기를 고사하나 사무엘은 예비된 식탁으로 그를 이끌어 함께 먹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암나귀를 찾은 아버지가 그들을 걱정한다는 소문을 들을 것과 다불 상수리나무에 이르러 세 나그네로부터 떡 두 덩이를 받고,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임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생각해보기	
1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선택하시고 사무엘을 찾아가도록 역사하심 (2) 사울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나서게 되고 라마 성읍 산당에 있는 사무엘을 만나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받게 됨 (3) 사울은 장차 자신이 왕으로 등극하리라는 예언을 듣고서도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았다. 이 겸손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세이다.
핵심 단어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 이는 사울의 왕권을 암시하는 선지자 사무엘의 말에 사울이 겸손히 대답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련의 행동으로 보아 분명 초기 사울은 겸손, 성실, 효성의 덕을 지닌 자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사울의 이러한 인간적인 덕도 여호와의 향한 신실한 신앙에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왕위에 오르고 백성들의 인기를 의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서서히 사라져 결국 교만한 자가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실로 사울의 경우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진리를 입증한 경우가 되고 말았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찬양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죄를 (찬송가 337장/통일 찬송가 363장)
통독	사무엘상 10장
본문 내용	선지자의 무리를 만난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해 예언을 하자,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놀라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고 말하게 됩니다.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서 숙부를 만나나 사무엘을 만난 이야기 외에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왕 제도에 담긴 불신앙을 지적합니다. 그리고는 각 지파대로 천 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여 지파를 뽑고, 가족을 뽑고, 마침내 사울을 뽑습니다. 행구 뒤에 숨은 사울을 이끌어 내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으심을 선포합니다.
생각해보기	
1	왕으로 기름부음 (1)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가 왕이 될 것임을 확신시키는 세가지 징표(셀사,다불 상수리 나무,하나님의 산)에 대하여 예언하며 먼저 길갈로 보냄 (2)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기 위해 몸을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의 무리와 함께 예언하였고 세가지 징표가 다 이루어짐. (3)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모으고 모든 지파별로 제비뽑기를 통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을 왕으로 선출하였지만 일부 백성은 사울을 멸시함 (4)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함이 있어야 한다.
핵심 단어	사울의 머리에 붓고 - 기름을 붓는 일은 맡겨진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나타내는 상징적 행동이었다. 즉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에게 신적 사명과 권위를 부여하여,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공식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는 임직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기름 부음의 의식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성별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을 상징하기도 한다. 한편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제사장과 왕, 그리고 선지자였다. 따라서 여기 사울에 대한 사무엘의 ‘기름 부음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왕직 역시 이미 존재하던 제사장직 및 선지자직과 더불어 동등한 하나님의 3대 신적 직분으로서 그 권위를 가진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또 한편 여기서 기름 붓는 일이 비밀리에 행해진 까닭은,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사울이 먼저 하나님의 소명을 철저히 깨달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여기서의 기름 부음은 사울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께 피택되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서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